

2019학년도 수능 39~42

지문 난이도 ★★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9위

01 ~ 04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1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2**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 (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3**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4**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5**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6**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1 모순 관계로 살펴보는 가능세계

- * 모순 관계: (두 명제가) 모두 참 불가능 & 모두 거짓 불가능
- * 무모순율: (모순 관계인)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불가능
→ (모순 관계인)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음!
→ ~P인 가능세계는 있음!
- * 가능세계: (두 명제가) 모두 참 가능 혹은 모두 거짓 가능 ↔ 모순 관계

2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3**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4**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가능하지만 필연적인 명제

- * 필연성: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
- 가능성: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
→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
- *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음.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 ‘모순 관계’처럼 도입부 첫 문장에 제시된 개념은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이거나 중심 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보조 내용에 해당한다.
- * ‘모순’의 사전적 의미는 익숙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만 의지해서 지문을 읽다가는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지문을 통해 여기에 제시된 개념을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1, 4

- * ‘모순 관계라고 한다.’ ↔ ‘모순 관계가 아니다.’처럼 대립 항이 성립되는 내용은 문제화되기 쉬우니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5

- * <가정(~다면) + 추측(~것이다)>의 구조. 문장의 구조를 크게 둘 또는 셋으로 나누어 읽는 습관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 ‘~것이다’(주장)처럼 글쓴이의 생각과 객관적 사실(fact)을 구분하는 일은 국어 공부의 기본에 해당한다.

6

- * 개념 설명이 항상 ‘A는 B이다.’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다. ‘두 명제(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처럼 <수식 형태의 설명 + 개념어>의 형태를 갖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잘 잡아내야 한다.

※ 첫 문장에서 개념으로 제시된 ‘모순 관계’와 끝 문장의 ‘가능세계’는 대립 항이다. 첫 문장과 끝 문장에 각각 개념어가 제시되어 있다면 끝 문장에 제시된 것이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에 해당한다. 끝을 이어받아 다음 본론의 내용을 이끌어 나간다. 그렇다면 ‘모순 관계’는 중심 화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인 셈.

2

1

- *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을 통해 필연성과 가능성을 관련지어 각각의 설명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을 하면서 다음 내용을 만나는 것과 그냥 다음 내용을 만나는 것은 독해력과 독해 시간의 분명한 차이를 가져온다.)

4

- * 문장이 길고 심표가 없다면, <주어부 + 서술부>의 사이에 사선 표시를 하여 경계를 둔다. (~명제는 / 우리의~)
- * ‘어떤 가능세계에서 성립하고’ ↔ ‘어떤 가능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처럼 대립 항이 성립되는 내용은 문제화되기 쉬우므로 이들을 포함한 문장을 잘 살펴봐야 한다.

3 1가능세계를 통한 답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3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4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5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6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7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8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9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10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11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일상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능세계

- * 전통 논리학: 'A이면 B이다.'에서 A가 거짓인 경우 →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 'A이면 B이다.'는 참
- * 'A이면 B이다.'가 'A이더라도 B는 아니다.'보다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음.(A는 가능세계) →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 'A라면 B'라고 진술 가능

4 1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2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3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4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5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6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7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8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9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10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11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12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4 가능세계의 4가지 성질

- * 일관성: 어떤 것이 불가능 → 성립 가능세계 없음.
- * 포괄성: 어떤 것이 가능 → 성립 가능세계 존재
- * 완결성: 배중률 성립(P와 ~P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
- * 독립성: 하나의 가능세계는 모든 시공간을 포함 → 연속된 시공간 속의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존재

3

1

어휘 체크

- * 답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를 함.

5

- * '그런데'처럼 문단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역주행 흐름의 표지는 긴 문단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 마련이고 이후부터가 문단의 포인트가 된다.
- * '전통 논리학'처럼 이를 중심으로 전후에 대립적인 개념이 나온다면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자. '전통~'과 관련된 개념은 항상 '전통이 아닌' 현대~와 관련된 개념과 대개는 대립 관계에 있거나 수정-보완의 관계에 있다.
- * 겹문장 해석 주의: <주어+서술어>가 뒤엎겨 있는 문장은 전체 문장의 <주어+서술어>와 안긴문장을 잘 구분해야 실전 독해에서 혼란을 덜어낼 수 있다. 일단 전체 문장의 <주어+서술어>를 체크해 두는 것이 관건. - 전체 문장("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참이라고 규정한다.) / 안긴문장(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10

- * <A보다 B하다.>처럼 비교형의 구조는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A와 B를 뒤바꾼 잘못된 선지에 주의하자!

11

- * '일반적으로'가 나오면 그와 대립 항인 '일반적이지 않은, 즉 특이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자.
- * <조건+상황+결과>처럼 문장이 길다면, 일단 <결과>에 포인트를 두고 <상황>, 그다음에 <조건>을 같이 연결하여 차근차근 읽어 보자.

4

1

- * '네 가지 성질'을 통해 앞으로 각 성질의 경계 부분이나 개념어에 체크해 두어야 시각적인 구조화를 이룰 수 있다.

2~9

- * 개념과 설명이 쏟아진다면 동그라미와 밑줄을 적절히 표시해 두자.
- * 여러 개념 중 가장 낯선 개념에 포인트를 두자. 출제자는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을 소재로 하여 문제 내기를 좋아한다. ('배중률'이 들어간 완결성이 제일 낯설다.)

3

-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시험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일은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작업 중의 하나이다.

7

어휘 체크

- * 배중률: 형식 논리학에서 사유 법칙의 하나.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법칙을 이른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의 판단이 모두 참이 아닐 수는 없다는 원리이다.

5 1(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5 가능세계의 연구 현황 및 전망

- * 가능세계에 관한 연구 활발
- *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 여러 분야에 응용

5 ※ 마지막 문단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의의와 전망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의의와 전망을 말하고 있다.

0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0위

#내용 일치 #등급 가이드 #패턴 공략

정답률 6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0%	② 10%	③ 16%	④ 9%	⑤ 5%

정답 풀이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셋째는 1(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4문단]

지문 POINT

<가능세계~>+<어느 세계에서든> → 가능세계를 포함한 어느 세계에서든~

↳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1)

1등급 가이드

지문 전체를 놓고 따져 보아도 가장 낯선 용어는 '배중률'일 것이다. 개념이 쏟아지는 4문단에서도 '배중률'이 유난히 낯설다. 이렇게 낯선 개념은 문제의 정답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낯선 개념이 포함된 선지를 다른 선지들보다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개념어와 설명 간의 낯섦(일반 상식과 다른 의미를 지닌)이 발견되면 그 내용도 정답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험생에게 익숙하고 상식적인 내용보다는 낯선 내용에 포인트를 두어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심리로 볼 수 있다.

<개념어와 낯선 설명이 정답으로 설정된 사례>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④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

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 2018 수능 (정부의 정책 수단) 지문 중 -

<문제> ②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개념어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중 개념어와 설명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낯선 <자동성>이 정답으로 설정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자동성'은 '수동성'과 반대되는 말인데,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낯설다.

오답 풀이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1)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2)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2문단]

↳ 가능한 명제 중에서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1) 현실세계에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1)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2문단]

↳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1) 따라서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패턴 공략

▶ ‘필연적’과 ‘모든’처럼 절대적인, 곧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은 ‘예외를 허용한 잘못된 선지(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로 바뀌어 자주 출제되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1문단]

↳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1)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1)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2)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3)참이라고 규정한다. [3문단]

↳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 1)는 A가 거짓인 경우 2) 참으로 규정되므로 3)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02.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37위

#이해 #대립 선지의 법칙 #최협의 조언

정답률
4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48%	③ 12%	④ 20%	⑤ 13%
------	-------	-------	-------	-------

정답 풀이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①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2)“다보탑은 경주에 있다.(①)”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3)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2문단]

해법 POINT

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 가능성○, 필연성×

①의 거짓: 다보탑은 경주에 없다. → 가능함!

↳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는 <Q이면 Q이다.> 형식의 필연적인 명제이므로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고 1) 이 중에는 ①의 거짓인 ‘다보탑은 경주에 없다.’가 가능한 세계도 있다. 왜냐하면 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기 2~3) 때문이다. 어떤 가능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①의 거짓인 “다보탑은 경주에 없다.”가 가능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①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①이 성립하지 않는(즉, 다보탑이 경주에 없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3)

③ ①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1문단]

해법 POINT

①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를 부정하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는 없었다.> ≠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가 참이면서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도 참일 수 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이 가능하기1) 때문에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 세계는 없지만 1)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1문단]

해법 POINT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를 부정(거짓)하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는 없었다.> = <다보탑은 개성에 없다.>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있다1)는 의미이다. 그런데 만약 ㉠이 거짓이라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있다.'1)가 부정되기 때문에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없다.'가 된다. 즉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게 된다.

최선의 조언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를 거짓(부정)인 경우를 고려하여, <다보탑은 개성에 없을 수도 있었다?>,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다?> 등 복잡한 과정을 따져 봤다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럴 필요 없이, 일단 ㉠이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있다.'1)고 직접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쉽게 문제를 풀면 된다. 수험생들이 문제가 쉽게 풀리면 오히려 '어, 이거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는데... 뭔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여 복잡한 과정을 따져 보는 경우가 있다. 쉽고 직접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정/오 판단을 하자. 지문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평가도 출제자들이 의도한 것이다.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그런데 2)“㉠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3)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1문단]

↳ ㉠과 ㉡은 모순 관계가 아니기2)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1) '현실과 다르게'라는 말을 통해3) 이전에는 <현실세계>에서의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가능세계의 존재 여부로 선지 ①, ②가 1 대 1 대립을 이룬다.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정답)

그래서 지문과는 상관없이 선지 ①, ② 중에 정답이 있을 확률은 70% 이상이다.

최선의 조언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두 선지 중 도저히 정답을 고를 자신이 없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냥 찍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만약에 아무 근거 없이 답을 찍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선지의 길이가 가장 길거나 두 번째로 긴 선지를 찍어라! 아무래도 긴 선지가 짧은 선지에 비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도 가장 긴 선지 ②가 정답으로 설정되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꿀팁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다. (선지의 법칙을 포함해서) 이렇게 아주 소소하지만 작은 팁들이 모이고 쌓이면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험생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국어 시험은 점수 향상이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런 팁을 알아둔다고 하여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찍어서 정답을 맞힌 수험생과 시간을 투자하여 문제를 풀었지만 틀린 수험생과는 시험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03.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9위

#문고 답하기 #났다-났다

정답률 5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	② 16%	③ 54%	④ 18%	⑤ 4%

정답 풀이

③ 내가 그 가치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럼에도 ②내가 만약 그 가치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내가 그 가치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하지만 내가 가치를 탄 세계들 중에서, 2)내가 가치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시간에 도착한 세계 = 지각하지 않은 상황)이 <그렇지 않은 세계 = 지각한 상황>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3문단]

㉮ 지문 POINT

- * <지각한 상황> → (상대적으로)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낮음.
<지각하지 않은 상황> → (상대적으로)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음.

↳ 내가 그 가치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1)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2) 때문이다.

✓ 어휘 체크

- * 낮다: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 (부정적)
- * 낮다: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 (긍정적)

☞ <낮다>와 <낮다>는 의미는 반대 맥락이지만 발음은 동일해서 종종 수험생들이 헷갈려하고 이를 이용해 출제자들이 위 두 단어를 바꿔치기한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 6월 평가원

Q.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백열전구는 형광등보다 적외선 방출이 많으므로 형광등에 비해 발광 효율이 낮겠군.
- ⑤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는 형광 물질을 통해 빛을 생산하지만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겠군. (☆정답)

- <발광 다이오드>가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다 (○)
- <발광 다이오드>가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다 (×)

☞ 기출의 문제 패턴은 반복된다. 우리가 기출을 소홀히 하지 말고 N회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 오답 풀이

① 내가 그 가치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그 가치를 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질문에 가정 자체를 부정하는 <그 가치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내가 그 가치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가치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그 가치를 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질문에 가정 자체를 부정하는 <그 가치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내가 그 가치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지각을 하지 않은 것>과 <지각을 한 것>을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으로 비교해야지 가능세계들의 다수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내가 그 가치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 <그 가치를 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질문에 가정 자체를 부정(현실세계에서 거짓)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04.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위

#이해 #보기 제시 #3점 #보기 선지의 법칙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3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6%	② 13%	③ 30%	④ 34%	⑤ 7%

✓ 정답 풀이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1)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둘째는 2)<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4문단]

㉮ 해법 POINT

<A인 것이 가능하다.> → A가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2)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즉 둘 중 하나만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다. 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지문에 따라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④번 선지에 제시된 두 개의 명제는 가능하므로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참입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어 ‘-둘09’는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단 하나의 가능세계에 대해서도 성립하므로 이 경우 가능세계들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참이지만 ‘~가능세계들이 존재한다.’는 참이 아닙니다. 따라서 ④번 선지에 오류가 있습니다.

〈답변〉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의 경우는
 경우 1.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참 → 가능세계○) +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거짓 → 가능세계×)
 경우 2.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거짓 → 가능세계○)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거짓 → 가능세계×)
 가능세계가 2개가 나오므로 가능세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X 오답 풀이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1)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셋째는 2)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3)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4문단]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만 가능하다(기1) 때문에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라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2~3)이라는 선지 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 것이 1)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2)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4문단]

↳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1)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음!)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2)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둘째는 1)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2)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4문단]

해법 POINT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배중률 성립: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

〈배중률이 성립하는 경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참)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거짓)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거짓)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참)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참)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참)

〈배중률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거짓)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거짓)

↳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이 성립해야 한다. 1~2) 하지만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모두 거짓인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중률〉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라,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보기〉의 반대 관계 설명은 존재 함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 함축을 전제로 이 글을 참고하면 선지 ③은 적절한 선지가 되므로 선지 ④와 더불어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답변〉 존재 함축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존재 함축 전제로 이 글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 '전문 논리학'처럼 수능 출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문 외의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1)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2)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4문단]

📖 해법 POINT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둘 중 하나만 참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만 참인 경우,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만 참인 경우도,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둘 다 거짓: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둘 다 거짓인 경우,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 가능세계의 <일관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보기>의 명제를 바탕으로,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의 의미로 봤을 때1)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관련된 다.2)

★ 보기-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8쪽 참고)

* 위 문제는 지문 없이, 보기+선지의 적절성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④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둘 중 하나만 참)
 📌 (☆정답)

보너스 칼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지만...

고 3이면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 이때 실전의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 수능은 낯선 환경에서 고도의 긴장감을 가진 채 보는 시험인데 이를 연습해 볼 만한 상황이 그리 많지 않다.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통해 이를 충분히 연습해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것은 점수나 등급보다는 국어 영역별 공부의 양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두세 달 공부로 국어 점수는 쉽게 오르지 않는다.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능을 향해 꾸준히 지치지 말고 달려가자.

틀린 문제는 또 틀리게 되어 있다!

틀린 문제는 틀리고 또 틀리고! 누구나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가져온 학습 태도, 방법, 습관, 사고방식, 고정관념 등은 잘 바뀌지 않는다. 자주 틀리는 문제의 분야나 유형도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 행동이 없거나 부족하면 원래 있던 습관처럼 또 그렇게 틀리게 된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 보는 일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첫걸음이다. 귀찮더라도 점수를 올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오답 노트를 만들기 귀찮다며 계속 미룰 경우, 맞는 문제는 계속 맞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게 될 것이다. 오답 노트에는 지문 명, 해당 문제 유형, 부족한 지식, 틀린 이유 등을 정리하면 된다.